

윤석열 군산시 안전총괄과장, 방재의 날 대통령 표창

군산시는 윤석열 안전총괄과장(사진)이 최근 제32회 행정안전부 ‘방재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재난 대응관리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윤 과장은 2024년 여름철 풍수해 기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당시 인명 피해 우려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전 대피 명령하는 등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한 점을 인정받았다.

윤석열 과장은 “2019년 하수계획계장 재직 시부터 안전 업무 담당에 대비해 행안부 주관 방재 전문인력 자격을 취득했다. 이것이 실제 업무 추진과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 폭염 등 예상되는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후변화까지 고려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에 빈틈없이 대비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남원농협,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개강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달 29일부터 본점에서 ‘2025년 제4기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이 교육은 결혼이민여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후계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농업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사업으로, 2022년부터 4년제 남원농협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실습 위주의 농업교육, 농산물 생산 유통, 6차 산업 심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총 15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박기열 조합장은 “결혼이민여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남원농협이 친정엄마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보건위생과, 농촌일손돕기 동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보건소 보건위생과가 지난달 30일 불철 농번기를 맞아 금산면 용산리 소재 딸기 재배 농가를 찾아 딸기 묘목 정리 및 시설 내 환경정비 등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보건위생과 직원 15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가 묘목 정리, 잡풀 제거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수도사업소,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수도사업소 직원 15명이 최근 공덕면 제말리에 있는 딸기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번기를 맞아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확이 끝난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 묘목과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도움을 받은 농가에서는 바쁜 업무 중에도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내 일처럼 일손을 보태준 모습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인사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유지원 개발전략국 투자유치과장

환경·문화로 친구가 된다

부안 남주중, 대만 오일중과 국제교류 협력 MOU

부안 남주중학교(교장 임용태)가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대만 타이베이 오일중학교(烏日國中) 교장 사메이쥬엔(夏梅娟)을 비롯한 교원 6명이 남주중학교를 공식 방문해, 양교 간 국제교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남주중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중국어 수업을 개설함에 따라 추진된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한 양교 간 교류는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적 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일중학교 교원단은 이날 오전 11시경 남주중학교에 도착해 환영 인사를 받은 후, 교장실에서 양교 관계자들과 함께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양교 교장을 비롯해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교 간 우의를 다졌다.

체결식 이후 교내 투어를 통해 남주중학교의 교육 환경과 수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 중학교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는 부안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이 제공되어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오후에는 새만금 전시관, 격포 해안, 내소사, 부안청자박물관 등을 순회하며 부안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탐방은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로



서 남주중학교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국제교류는 단순한 언어·문화 교류를 넘어, 양 지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학생 중심의 공동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양교는 새만금 간척지로 인한 연안 생태계 변화, 도시화로 인한 대기오염 등 지역의 주요 환경 이슈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토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 참여와 실천을 강조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양국 학생들은 ‘환경 실천 챌린지 Vlog’를 제작해 일상 속 친환경 행동을 기록·공유하며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대만 전통 향낭 만들기 체험과 친환경 DIY 텀블러 꾸미기 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실천적으로 체험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순창 농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탁

지난달 29일 남원시와 순창군 농축협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을 실천하는 기탁식이 진행됐다.

남원시 농축협이 1,380만원을, 순창군은 1,320만원을 조성해 각 고향사랑기부금의 형태로 기탁했다.

상호 기탁식에는 △NH농협 남원시지부장 오영석, 지원단장 김형규 △남원농협 조합장 박기열 △남원축협 조합장 한경석이 참여하고, 순창군은 △NH농협 순창군지부장 신종철, 지원단장 장승운 △동계농협 조합장 안준섭 △구림농협 조합장 김순용 △서순창농협 조합장 설득환 △순정축협 조합장 남삼국이 참석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참여해 주신 순창군-남원시 농축협에 감사드리며, 고향사랑 상호기부가 양 지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오늘 상호기탁을 통해 양 시군 간의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부안 로컬JOB센터, 고향사랑 상호 기부

고창로컬JOB센터(센터장 양치영)와 부안로컬JOB센터(센터장 최연곤)가 함께 참여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기탁식을 최근 부안군청에서 열었다.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로컬JOB센터의 역할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서로의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기탁식에는 고창군로컬JOB센터 관계자들과 부안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간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재정지원의 의미를 넘어서 지역 간 우호 증진과 공동 번영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행사였다.

양치영 고창군로컬잡센터장은 “지방소멸 대응과 청년 유입을 위해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오늘의 상호기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여성단체협, 산골영화제 운영진에 간식꾸러미

무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마경옥)는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준비하는 운영진과 관계자들을 위해 최근 여성단체 회장 및 임원진이 모여 간식 꾸러미(수제오랑다, 과일, 수제 오미자 원액 등) 25인분을 포장해 전달했다.

무주여성단체협의회는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준비하는 운영진과 관계자분들을 방문하여 작지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운영진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무주여성단체협의회 마경옥 회장은 “무주산골영화제는 지역 문화 예술을 빛내는 소중한 행사”라며 “준비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응원을 전하고 이런 응원이 모여 영화제가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진행

남원시가족센터는 최근, 다문화가족 33명을 대상으로 목포 일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행복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아버지의 가족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아버지 참여 가정을 우선 모집해 가족 간 유대 강화를 도모했다.

캠프는 목포자연사박물관, 해상케이블카 체험, 그리고 스카이워크 방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족들이 함께 자연과 문화를 즐기며 소중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한 가정은 “가족이 함께 여행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며 힐링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풍년농장,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관내 주)풍년농장(대표 이성만)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풍년농장은 도동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후원된 계란은 저소득 한부모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회 순창군지회장기 파크골프 대회 성료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가 주관한 제2회 순창군지회장기 파크골프 대회가 지난달 30일 순창군 유등면 섬진강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참가 선수와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대회가 열린 유등면 섬진강파크골프장은 순창군이 갈수록 늘어나는 파크골프 인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한 시설이다.

아울러, 군은 현재 쌍치면 금정체육공원에도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 중으로, 군은 보다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안해경, 변산 해안 고립·익수자 3명 긴급 구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성덕)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42분경,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인근 해안에서 해무질 중 고립 및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구조대와 변산파출소팀이 신속히 출동해 현장에 있던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무질 중이던 A씨는 바닷물이 차오르며 갯바위에 고립되었고, 인근에서 스킨스쿠버 활동 중이던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한바, 물에 빠진 여성 2명을 발견하고 갯바위 위로 옮긴 뒤 구조 요청을 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과 소방대원은 스킨스쿠버 활동객의 초기 구조 조치에 고립자 3명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조된 최초 신고자인 A씨는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여성 1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했다. 다른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야간 해무질은 고립이나 익수 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때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이야기 마당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식물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와 창조적 생활과 회화를 위한 치유형 생태 인문 예술 이야기 마당을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2층 로비에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한 치유형 생태 인문 예술 이야기 마당 ‘자연 안에서 삶을 품다’의 두 번째 릴레이 강연으로 생태체험과 인문학 강연을 결합한 복합형 문화행사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초록생활연구소 정재경 대표가 ‘건강관리 라이프, 초록생활’을 주제로 식물 인문학 강연을 펼쳤다.

/무주=전문선 기자